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

정 상 윤(한국기독교한림원 원장)

여는 말

2026년 현재, 한국교회는 다음세대(Next Generation)의 급격한 이탈이라는 전례 없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한국교회는 우리가 처한 오늘의 상황을 냉철히 직시하고 현재의 위기를 진단하여, 급변하는 한국사회 속에서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와 되지 않도록 이 땅에 기독교적 가치관 정립과 한국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지속하는 전략적 대안을 모색하고 실행해 나가야 합니다.

1. 초기 한국교회 상황과 양적 성장

초기 한국교회의 성장과 사회적 영향력은 구한말 암울한 역사적 정황 속에서 복음과 근대화라는 시대적 사명을 유기적으로 신앙과 삶, 그리고 교육을 결합하는 데서 시작하였습니다.

초기 선교사들과 기독교 지도자들은 단순히 신앙교리만을 전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서민들을 위한 시병원(施病院), 유교적 관습에 찌든 조선 여성들을 위한 보구여관(保救女館) 등 근대식 병원을 세워 다양한 계층의 의료선교를 펼치며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대식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봉건제도를 타파하며 교육선교에 박차를 가함으로 이 땅에 서양 근대화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당대의 기독교 학교는 민족의 지도자들을 배출하는 요람이었으며, 교육 자체가 곧 기독교 가치관의 실현, 복음의 사회적 실천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실례로 우리나라 국부인 우남 이승만 대통령도 우리가 잘 아는 아펜젤러 선교사가 세운 근대식 교육기관인 배재학당을 1897년에 졸업하고 그 이듬해 협성회 회보 주필과 매일신문 사장을 맡고 만민공동회와 독립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당시의 기독교는 낡은 구습을 타파하고 새로운 세상을 여는 가장 탁월하고 앞선 참된 종교로 인식되었습니다.

한국교회는 3.1운동 때 일제에 의해 체포, 수감된 9,059명 수감자 중에 불교 0.5%, 유교 0.6 %, 천도교 15%인데 반해서 22.5%에 달할 정도로 한국종교들 가운데서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암울한 시대 우리 민족의 새로운 한줄기 구원의 소망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6.25한국전쟁 때 이 땅에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피를 흘렸고, 전후 피해 복구와 구제에 수고의 땀을 흘리며 한국교회는 세계 선교역사상 단기간에 양적 성장을 이루는 비약적인 부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 현재 한국교회 교인 감소와 신앙 전수의 생태계 붕괴

현재 한국교회는 양적 성장의 정체기를 지나 가파른 하락세에 접어들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신앙 전수 생태계의 붕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더불어 한국교회 교인 숫자가 해마다 감소되는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감소가 영유아-청년층으로 이어지며 한국교회도 다음 세대 신앙교육과 선교의 터전인 교회학교와 미션학교의 학원선교가 대책 없이 무너지고 세대 간의 신앙전수의 공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실례로 예장 통합의 경우를 살펴보자면, 2020년 10월에 예장 통합총회장 신정호 목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총회 산하 9,800교회 중에 교회학교가 없는 곳이 절반에 가깝다는 보고는 참으로 가슴 아프게 합니다. 심각한 저출산과 이농현상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수하지 못하고 있는 기성세대의 책임이 크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 대형교단 중의 하나인 예장 통합교단의 경우만 해도 이런 상황인데 다른 교단 상황은 더 이상 살펴 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미 심각한 수준에 와있습니다. 조금만 주의 깊게 한국교회 내부를 들여다보면, 한국교회 미래에 대한 위기 경고등이 이미 심각 수준으로 켜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장로교 통합의 교세 통계를 보면 전체 교회 수는 2009년 7,997개에서 2017년 9,096교회로 1,099교회가 증가하였고, 2024년에는 9,446교회로 2009년 기준으로 보면 무려 1,449교회가 증가하였습니다. 15년 기간에 늘어난 1,449교회 수는 한국교회 10대 교단 안에 들어오는 새 교단이 하나 더 생기는 것과 같은 수치의 증가입니다. 목회자 수도 교회 증가에 질세라 비례해서 2009년 기준 14,997명에서 2024년에는 23,020명으로 8,023명이 급증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상반되게 교인은 2009년 2,802,576명에서 2024년에는 2,190,919명으로 무려 611,657명이 감소되었습니다. 2009년 기준으로 해서 20% 이상 교인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변수가 없는 한 앞으로 갈수록 한국교회 교인 감소 추세가 가파르게 높아질 추세를 보여 줍니다. 한국교회도 이런 추세가 계속 되면 멀지 않아 영국교회처럼 제가 10여 년 전에 영국의 유명한 해안도시 본머스(Bournemouth)를 방문할 때 목격한 것처럼 ‘교회는 있는데 교인이 없는 교회’가 급증할 것이 예상됩니다.

또한 우리는 한국교회 대형교단 중에 하나인 예장 통합교단의 경우를 살펴보다도, 한국교회는 목회자 수의 증가와 교인 수의 급감이라는 기형적인 구조 현상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 급증과 교인 급감, 이것이 오늘의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이 구조도 더 악화되어서 목회자 감소와 더 심각한 교인 급감상황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해마다 신학생 입학 자원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밝은 미래가 있을까요?’

3. 다음 세대 감소의 주요 요인들

1) 저출산으로 인한 급격한 다음 세대 감소

우리나라는 현재 저 출산과 초고령화사회 진입으로 연령별 구조가 피라미드식이 아닌 역삼각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구 세대 간 불균형 현상입니다. 수명은 늘어나고, 아이들의 출생은 줄어드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데이터처 공식 블로그에 들어가 살펴보면, 2015년 출생아 수가 438,400명에서 해마다 계속 줄다가 2023년에 23만 명, 2024년에는 23만 명에서 8,300명 소폭 반등한 238,300명 수치를 보여 주는데, 10년간 통계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출생아 숫자가 43만 명에서 23만 명으로 10년간 무려 20만 명이 줄어든 심각한 저출산을 보여줍니다. 지금도 어려운데 10년, 20년 뒤의 한국사회는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구체적인 통계로 말씀드리자면, 작년 2025년에 초중고 45학교가 폐교를 하였습니다. 신입생이 1명도 없는 학교가 2024년에 157학교에서 작년에는 184학교로 늘어났습니다. 초중고가 이런 실정이다 보니 대학도 저 출산의 영향으로 갈수록 입학자원이 급감하여 벚꽃 피는 순서대로 문을 닫는 대학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년 신입생을 50%도 못 채우는 대학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수들이 여담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서울대(서울에 있는 대학)와 서울 약대(서울에서 약간 떨어진 수도권 대학)만 살아남고 서울법대(서울에서 제법 떨어진 충청권대학)와 서울상대(서울에서 상당히 떨어진 영호남대학)는 죽어간다.’

저 출산으로 인한 인구 급감은 이 뿐만 아니라 국방 인적자원 고갈과 노동력 부족 문제 등 여러 사회 문제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얼마 전에 “인구 감소 속도가 제일 빠른 나라,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국가가 한국”이라고 말한 것이 허튼 남의 이야기로만 들리지 않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말을 차치(且置)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지금이라도 이에 대한 선제적인 적절한 대응과 대비를 하지 않으면 가장 먼저 소멸할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 출산으로 인한 우리나라 전체인구 급감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상황의 국면으로 발전되어 국가의 존망까지 이르는 위기 상황을 가져다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일은 장차 한국교회의 미래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20대 청년세대의 탈종교화 현상

저출산으로 인한 다음 세대 인구 감소와 함께 또한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은 현재 20대 청년층의 무종교 비율입니다. 다음 세대가 과거와 다른 세대로 점점 바뀌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경우에도 예외없이 유소년에서 청년층으로 이어지는 다음 세대의 감소는 한국교회 전체 교인수의 감소에 영향을 주고, 더욱이 청년층의 탈종교화(脫宗敎化) 추세는 한국교회의 청년층의 신규 유입감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의 연도별 조사 자료에 따른 추세치를 보면, 만19~29세 20대 청년연령층의 종교 인구분포를 보면 전 연령대 중에서 20대 청년의 탈종교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20대 청년 종교인 비율은 2004년 45%에서 현재는 24%로 거의 절반 수

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0대 청년층 무종교 비율이 20대 10명 중에서 8명이 넘는 85%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교회의 다음세대인 청년층의 공백의 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하나님과 교회보다 스마트폰, 게임과 주식, AI를 필요로 하고 찾는 MZ세대인 다음 세대 청년층 감소 위험을 직시하고 이에 대한 효율적이고 실제적인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합니다.

3) 다음 세대로의 신앙 전수의 단절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교회와 가정마다 편차가 크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한국교회는 부모세대의 신앙이 영유아, 초중고, 청년 다음 세대인 자녀세대에게 자연스럽게 계승되어 이어지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세대 간 신앙 전수가 단절되는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4. 한국교회 다음세대를 위한 실제적 제언(대안)

첫째, 한국교회는 과거의 성장목회에서 질적 성장의 교육목회로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의 주역인 15세 이하 유소년, 청년층(15~29세)에 이르기 까지 연령별, 학년별 체계적이며 전문적인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행하여 지금이라도 신앙 전수의 공백을 막아야 한다.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양적인 성장에 매몰되어 가시적 목회 성장에 몰두하고, 다음 세대 신앙 전수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고 내실 있는 질적 성장에 방심한 결과, 우리나라 인구 급감 상황 아래 교회학교가 힘없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절반이 넘는 많은 교회가 교회학교 문을 닫고 있다는 것은 미래 한국교회의 존립을 앞서 경고하는 위기 신호입니다. 한국교회의 대교단 중의 하나인 통합교단도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전체 반을 차지할 정도니 현재 상황은 경고(警告)를 넘어선 심각단계(深刻段階) 수준입니다. 교회학교의 쇠락(衰落)은 미래 한국교회의 존망(存亡)과 바로 직결됩니다. 따라서 인구 급감 위기 속에 다음 세대의 신앙 전수를 위해 한국교회는 목회 사역의 최우선을 다음 세대 살리기, 즉 다음 세대의 신앙계승(信仰繼承)과 전수(傳受)에 두어야 한다. 신앙교육의 생태계 붕괴의 중심인 교회학교의 뼈아픈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교회는 과거 성장목회에서 이제는 교육목회로 목회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예배 중심에서 예배-교육 확장으로의 전환 그리고 교회에서 부모를 가정신앙교사로 세우는 가정과 연계되는 신앙교육, 그 핵심 기반으로 QT기반의 원포인트(One-Point) 가정 연계 교육, 교회학교 전담 사역자와 하이브리드형 평신도 교사 선발 및 양육 등으로 대전환하여야 합니다.

둘째로, 한국교회는 다음 세대 선교로 선교방향을 전환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 급감과 한국교회 다음 세대 급감은 신앙 전수의 공백과 함께 이제는 한국교회 선교 방향에 대해서도 재고(再考)를 가져줍니다. 20대 청년세대의 탈종교화의 심화와 한국교회 교회학교의 붕괴는 이제는 한국교회의 선교 방향을 해외선교 일방향(一方向)에서 우리나라 다음 세대의 선교도 병행하는 쌍방향(雙方向)으로의 전환의 필요성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로이드 웨스트(Lloyd K. West)가 단순한 지리적 경계를 넘어 “한 그룹 안에 교회 출석과 정기적으로 그리고 신실하게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실제적인 복음주의 신자가 2% 미만인 경우가 미전도종족(Unreached People Groups, UPG)”이라고 지적한 것을 이 시간 상기합니다. 선교학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미전도종족의 기준은 해당 종족 내 복음주의 기독교인의 비율이 2% 미만, 가톨릭을 포함하여 5% 미만으로 외부의 도움없이 그들 스스로 힘으로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수 없는 토착교회와 복음이 전해질 때 언어적 혹은 문화적 장벽 때문에 기존의 신앙공동체로부터 복음을 전달받기 어려운 고립된 집단을 미전도종족으로 분류합니다.

근자에 들어와 넥타(Network for Christian TeenAgers Revival,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연대)선교회에서는 학원 복음화율을 5% 미만, 청소년 단체들의 통계로는 3.8%로 추산하며 청년 복음화율의 심각성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 미전도종족은 멀리 다른 곳에 있지 않고 바로 우리 가까이 초, 중고 그리고 청년세대인 다음 세대인 것을 보여 줍니다. 한국교회는 해외선교에서 이제는 눈을 돌려 우리 안쪽도 냉철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의 선교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다음 세대의 복음 전파와 영적 부흥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체제를 촘촘히 강구하고 실행해 나가야 합니다.

셋째. 한국교회는 기독교 사학의 정상화와 사학법 개정에 대해 공세적인 대응 국면으로 방향을 전환하여야 합니다.

오늘날의 교육 현장은 처참하게 분절(分節)되어 있습니다. 신앙 전수의 세 축인 가정-교회-학교 간의 메시지 충돌입니다. 가정은 세속적 입시 지상주의에 매몰되어 있고, 학교는 소위 명문대 입학에 위한 치열한 경쟁의 장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자라난 다음 세대에게 교회에서 주어지는 매주일에 한 두 시간 신앙교육은 현실의 난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잠시 울리는 공허한 메아리 소리에 불과합니다. 기독교대학도 과거와 달리 설립이념 구현보다는 각종 평가와 입시, 재정난으로 학생들에 대한 제대로 된 기독교 신앙교육을 실행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 공교육(公敎育)이란 명분아래 시행된 반성경적 진화론을 가르치는 일반교육의 내용은 기독교 구원과 가치관의 분리를 가져다주고, 교회와 가정의 신앙 교육이 성경적 세계관으로 더 이상 확장되지 못하게 하며, 그 결과 다음 세대들의 탈종교화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게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사학법 개정으로 인한 기독교 사학의 교육권 박탈로 교원 임용의 교육청 위탁 강제는 기독교 교육의 심장과도 같은 정체성 검증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성경적

세계관과 구원의 확신을 갖춘 소명감 있는 기독교인 교사를 주도적으로 선발하지 못하는 상황은 기독교사학을 일반 사교육 기관으로 평준화시키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기독교 사학과 일반 사학의 차이를 찾아보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 신앙교육의 현장의 근간을 뒤흔들고 다음 세대 신앙 전수와 복음화의 장애물인 기독교 사학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교원 임용의 교육청 위탁 강제의 사학법 개정과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보장 그리고 기독교 사학의 종교교육과정 편성의 자율성을 위해 한국교회는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복음 신앙의 근본적인 면에서 볼 때,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상으로 한국교회 미래에 악영향과 폐해를 가져다주는 사학법을 개정하여 기독교 사학의 본래 설립 이념을 구현하도록 한국교회가 일어서야 합니다. 지금은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취했던 소극적인 방어(防禦)의 자세에서 공세적(攻勢的)인 강력한 대응 국면으로 전환할 때입니다.

넷째, 한국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한 개별대응에서 전략적인 연합대응 체제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현재 한국교회가 처한 기독교 신앙교육의 구조적 위기는 개별교회나 단체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이 시대는 한국교회가 하나로 연대하여 전체의 연합 대응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위기에 공감대 형성으로 끝나지 않고, 한걸음 더 나아가 개별대응 차원을 넘어선 다음 세대를 위한 연합체들 간의 협력과 공조를 꾀할 수 있는 전략적인 한국교회 연합대응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이라도 머리를 맞대고 한국교회 전체를 총괄하고 협력, 지원하며 대응하는 연합기구를 구성하여 연대, 공조를 강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기 앞에서 내가 속한 집단만 바라보는 개신교의 고질적인 종교적 개인주의, 교파주의의 병폐를 넘어서야 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한국교회의 신앙공동체가 가져야 할 공동체성과 연대성을 회복하여 서로 힘을 합쳐 단일대오 체제로 나가야 합니다. 무성(茂盛)함을 자랑하는 거목(巨木)이라도 숲이 건강하지 못하면 점점 척박한 환경으로 내몰리게 되고 결국 자신도 고사(枯死)될 수 밖에 없다는 간명(簡明)한 자연이치를 바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한국교회 신학교육기관도 다음 세대 신앙전수가 붕괴되는 한국교회의 위기 앞에 교육적 대응을 다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다음 세대 살리기 운동에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위기 극복에 동참해야 합니다.

신학교들도 다음 세대를 위한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신학교육으로 전환하여 이제는 현 시대 한국교회가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내용을 담아내고 실제적으로 풀어내는 성경적이며 복음적인 신학교육의 터전으로, 신앙교육의 방파제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의 부흥을 선도하고 한국교회를 살리게 됩니다.

미국교회에서 신학적으로 진보적인 교회와 전통적인 주류교회가 복음적인 교회에 비해서 급격한 교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고, 영국교회에서도 1970년대 중반이후 성

공회, 감리교, 장로교, 로마 가톨릭교회 순으로 교인이 급감하는 반면에 오히려 이와 다르게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는 오순절 교회는 교인이 증가되고 부흥하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학이 십자가 복음신앙을 지향하지 않고 반성경적으로 합리적 이성주의나 메마른 도그마에 매몰되면 오히려 교회를 황폐화시키고, 쇠퇴의 길로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 오게 된다는 사실을 한시도 간과(看過)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닫는 말

오늘 우리는 단순한 학령인구 감소를 넘어선 기독교 가치관의 붕괴와 신앙 전수 생태계의 해체라는 전례 없는 한국교회의 다중적 위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인구 급감 속에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로 바뀌는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 두 손 들고 엎드려 회개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가 가정에서, 그리고 교육과 목회 현장의 최전선에서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으로 복음 신앙에 굳건히 서서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깨어있는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며, 한국교회를 갱신하고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회복하며 일으켜 세우는 일에 앞장서 헌신하며 나갈 때, 우리의 헌신은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위기에서 건져내고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여는 거룩한 마중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각주 생략